

크리스 메르코글리아노 초청강연회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는 사회, 아이들이 야생성을 어떻게 되살려줄까>

2014년 7월 29일 화요일 14-17시

2부 : 크리스와의 대화



[2부로 진행된 크리스와의 대화]

1. 지지봄봄과 함께 하는 프리토킹

아이들의 자치 모듬, 그리고 교사의 우정

강원재(사회) :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2부 사회를 맡은 OO은대학연구소의 강원재라고 합니다. 그리고 옆에는 지정 질의자로 문학평론가 고영직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그러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신나게 일을 하다가도 맛있는 걸 먹다가도 즐겁게 친구들과 놀다가도 굉장히 미안해져요. 내가 이래도 되나. 이런 자리에서 희망 같은 걸 이야기 하려고 해도 그게 잘 안돼요. 그것은 '세월호 참사'가 우리 사회에 던진 메시지가 아닌 것인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세월호 이전과 이후 우리사회가 변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많이 생겨나고 있지만, 그렇다면 실제로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럴 때 문화예술교육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금 이 자리에는 문화예술교육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부모님들도 있을 테지요.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고민하던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웹진 지지봄봄의 고영직 선생님의 질문으로 먼저 열겠습니다.

고영직(문학평론가) : 네, 반갑습니다. 문학평론을 하는 고영직입니다. 세 살에 텃밭을, 다섯 살 때 손수레를 하시며 큰돈을 벌었다는 자랑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눈썹 위에는 칼 장난을 하다가 남은 상처, 그리고 나무위에서 떨어져 왼쪽 다리가 부러져 너무나 신났던 경험도 있었어요. 아이들 최고의, 최후의 장난은 흙장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놀이터에 가면 그곳

을 사각에 가둬놓고, 대장균이 있느니 어쩌니 하며 관리하는 것이 아이들의 일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 안에서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인가? 우리 사회가 같은 문제를 반복 재생산 하고 있는 게 아닌지 고민이 듭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수영교육 활성화라는 기가 막힌 대안을 내놓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크리스 선생님의 책에서 가장 인상 깊은 것이 아이들의 ‘자치 모둠’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그래서 아이들의 자치 모둠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또 하나, 인간은 고독하지만 고립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우정의 힘이 작동하고 있는가. 학교 안에서 선생님이 열심히 하면 오히려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냐며 냉소를 받으면서 굉장히 움츠려 드는 거 같아요. 선생님 책을 읽어보면 굉장히 좋은 동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동료들의 우정을 통해서 어렵지만 자신의 길을 걸어오게 된 노하우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현장이거나 그 안팎에 있는 예술교사들이 이 우정의 힘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 선생님의 우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크리스에게 질문을 하는 문학평론가 고영직(지지봄봄 필진)]

크리스 : 말씀 감사드립니다. 특히 제가 공감한 부분이 **고립과 외로움**이 굉장히 큰 문제이고, 그것이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이라는 것이죠. 특히 교육에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교사들이 우정을 나누고 함께 뭉쳐야 한다는 말에 공감해요. 공립학교에서 진정한 배움과 교육을 하고자 하는 교사들이 저에게는 영웅이나 다름없습니다. 저는 쉬웠던 이유가 처음부터 대안학교에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환경이 이미 있는 곳에서 했던 겁니다. 반면, 그런 환경과 조건이 없는 곳에서 아이들과 함께 하시는 분들이 저에게는 영웅인 것이죠. 문제는 부모들도 이런 교사들과 마찬가지로 고립되어 있어요. 이런 식의 고립감이라는 것은 현대사회의 문제이고, 도시화라는 하나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부모들이 이런 고립감을 극복하기 위한 해답은 ‘**공동체와 연대**’에 있다고 생각해요. 함께 모이고, 공동체를 만들고 또 함께 모이고 그 안에서 더불어서 함께 생각하는 것이 해답이라고 봅니다. 여러분은 ‘**성미산마을**’에 대해서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말한 그 부모들의 훌륭한 공동체가 ‘성미산마을’이라고 생각해요. 부모가 다른 부모들과 손을 잡고 함께 할 때 자동적으로 그 자녀들도 함께 하는 것을 배웁니다. 부모가 친구라면 그 부모의 자식들도 서로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됩니다. 아이를 서로 맡길 수도 있고, 기르다가 부딪치는 문제에 대해서도 부모들끼리 함께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을 때 언론으로부터 나오는 메시지가 주변의 비아냥거림을 받는다 하더라도 자신의 신념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른바 총체적 난국에 이른 심각한 지경까지 온 상황에서는 이를 깨달은 사람들이 모일 필요가 있어요.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먼저 깨닫고 움직이는 사람들은 당연히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뭉쳐야겠죠. 아동기에 있어서 사회적인 측면, 즉 아동기에 사회화가 되는 과정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

이 아이들끼리 서로 어울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때문에 공동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특히 어린아이를 기르고 있는 부모일수록 공동체를 만들고 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성미산 마을’이 공동체의 훌륭한 사례로서 강력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 공동체 안에 아예 학교를 차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일반 학교에서 하는 것은 그저 아이들을 시험을 위해 계속 가둬버리고 스트레스에 노출되게 하는 그런 환경에 내 아이들을 보내지 않겠다며 스스로 만든 공동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날의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주는 스트레스와 압력이 있는 환경에서는 어떤 변화도 읽어낼 수 없다고 생각해요.

강원재(사회) : 교사와 부모들의 공동체성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사례를 직접 경험하신 대안학교 사례에 대해 이야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자치능력, 그 안에서 아이들이 토론해나가며 학습조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 그 사례도 함께 말씀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크리스 : 자치의 과정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일단 어떤 이해해서 출발을 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오늘날 망각한 중요한 진실은 ‘배움’이라는 과정 자체가 자체조직형이라는 겁니다. 배움이라는 과정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우리는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스스로 배울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났다는 것을 잊으며 살고 있어요. 아이는 사실 타인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가르치고 지적해줄 필요가 전혀 없어요. 또 그런 걸 배웠을 때에 누군가가 보상을 해줄 필요도 없고요. 외부에서 배우기 위한 동기부여를 해줄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 동기는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능력을 지니고 태어납니다. 배우려는 본능, 뭔가를 알고자 하는 지적 본능, 어떤 능력을 습득하고자 하는 본능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 중에서 가장 강력한 본능이죠. 숨쉬려는 본능, 심장이 계속 뛰려는 본능처럼 자율적인 본능이 바로 배우려는 본능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뭔가를 배우고자 하는데서 어른으로서 가르치는 능력이나 힘이 어른에게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진 힘은 그 배움에 방해가 되는 힘뿐인 것 같아요. 그저 부모는 아이에게 동화를 읽어줄 수도 있고, 아이가 단어 뜻을 물어보면 대답해줄 수도 있는 것이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필수적이지 아니라는 것이고, 아이들은 스스로 다 배워나간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잠들어버린 아이와 예술로 만나기

김경옥(민들레) : 크리스 우리가 답답한 것은 이미 그런 능력을 아이들이 다 거세당하고 나서 만났다는 겁니다. 그 거세당해서 우리가 만난 아이들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그런 것들이 알바니 프리스쿨에서는 어떻게 이뤄졌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크리스 : 우선 그 본능을 다 되살리기 위해서, 그것이 다 죽은 상태에서 아이들이 왔을 때 우리-미국 알바니 프리스쿨-은 아이들을 하루 종일 놀게 해요. 진정한 놀이에 아이들이 몰입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아이들이 어른의 감독 없이도 자기들끼리 놀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게 해줘요. 7살 이상이 되면 어른의 동행 없이도 자기들끼리 도심의 공원에 가서 놀 수 있게 해주고요. 또한 알바니 프리스쿨은 도시에 있지만, 이 도시를 벗어나서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많이 만들기 위해 노력해요. 그런데 그것을 생태학습, 자연학습 등처럼 구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이들을 자연에 풀어놓아요. 또 목공예를 아이들이 스스로 하고 만들 수 있도록 작업실도 따로 열어두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공간도 있어서 찰흙으로 무엇을 만들거나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합니다. 아이의 창의성이 발현될 수 있도록 여러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창의성이 배움에 핵심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아이가 타고난 혼에 상처를 받았다면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약은 ‘예술’이라고 생각하므로 ‘예술’로 저희가 치유를 하고 있어요.

고영직 : 제가 책을 읽었을 때는 학생들이 자치모임이 갈등을 해결하는 중요한 것이었고, 명명되지 않은

자유로운 캠프, 또 하나는 의례가 있는데요. 메타포를 강조하는 교육이 중요하게 깔려 있는 거 같아요. <길들여진 아이들>에서도 직업기술학교를 예를 들고 있는데요, 그런 식의 교육이 아이들의 길들여진 본능을 창의적으로 이끌어낸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요. 메타포를 강조하는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성장시키는 것이 ‘교육’이 아니라 ‘놀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그 생각이 매우 흥미롭고, 그 생각을 더 여쭙고 싶습니다.

크리스 : 제가 우선적으로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알바니 프리스쿨은 그 자체로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라는 단어가 요즘 너무 많이 남용되고 있으나 이 학교라는 공동체 안에서는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돌아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가장 어린 2살 아이부터 교사까지 다 알고 있어요.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 지점은 모든 구성원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책임이다’라고 모두가 생각하고 있어요. 주목할 부분은 그런 의식을 모든 공동체 구성원이 지니게 된 게 말로 주입시킨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깨달은 것이라는 점이지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로인해서 누군가 힘들어하면 그것을 모두 모여 이야기를 하며 해결해나가는 행위를 통해서 아이들이 그것을 깨달아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두 아이가 싸우거나 도난 사고가 발생 한다가나 하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 문제를 발생시킨 아이들을 교장실로 보내 훈계하고 벌을 받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전체회의를 엽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아이들이 왜 그랬는지 다 이야기를 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진정한 화해가 가능해집니다.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는 **의식과 의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 돼요. 다 함께 모여서 기뻐하고 축하해줍니다. 알바니 프리스쿨에는 여러 가지 종교를 가진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종교의 기념일도 다 같이 기념을 하고 넘어갑니다. 예컨대 누군가의 할머니가 돌아가시거나 키우던 고양이가 죽어도 같이 애도하고 함께 추도를 합니다. 또 이 공동체를 계속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음식’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매일 같이 학교에 모이면 아침과 점심을 꼭 같이 먹어요. 우리는 그렇게 은유(메타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요. 아이슈타인이 상상력이 사실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던 생각을 기반으로 학교를 운영해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상상력이 자극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놓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초등학교 아이들과 작문 수업을 할 때도 문법을 가르치거나 단어장을 쓴다거나 하는 그런 식의 교육은 지양해요. 아이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능력을 활용해서 시를 쓴다거나 소설을 쓴다거나 하는 방식을 지향합니다. 특히 오늘의 주제나 소재들을 던져주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아요. 또 절대로 그 아이가 만든 창작물에 대해서 평가도 하지 않습니다. 시험을 보지 않는 건 물론이고요, 아이가 만든 창작물에 대해 ‘좋다, 나쁘다’, 혹은 ‘좋았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굉장히 칭찬도 아껴서 해요. 이유는 아이가 자기만을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칭찬을 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창의력이 아니겠습니까?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진정한 창의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글쓰기 실력이 늘면서 창작물이 세련되어질수록 조언을 할 수는 있겠지요. ‘결과물이 재밌다’, 또는 열심히 노력했다면 ‘노력했구나’ 정도의 언급은 합니다. 그러나 초반부터 철자가 틀렸거나 하는 걸 지적하지도 않습니다. 본인이 쓴 것은 스스로 알아보면 되는 거잖아요. 초반에 글쓰기를 하는 건 자기 상상력을 동원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죠. 상상력을 진열에 옮기는 연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것 자체로도 신나기 때문에 아이들은 더 하고 싶어 해요. 아이들이 스스로 동기부여를 해나가면서 진전이 될수록 조금씩 문법이나 철자에 대해서도 조언하기 시작해요. 대문자 소문자를 구분하거나 문단을 나누는 것들을 알려주기도 하고요. 그것은 자기가 쓰고자 하는 것을 더 잘 쓰기 위한 도구가 됩니다. 이것은 ‘나는 글쓰기를 더 잘하고 싶다’는 동기를 이미 아이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내가 훌륭한 작가로 성장하기 위해 중요한 도구라고 인식을 하고 이를 더 잘 수용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식의 글쓰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시립 도서관이 있는데요, ‘시 쓰기 대회’ 등 그런 것을 하면 우리 학교에서도 대회에 나가고자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학교는 60명 규모의 아주 작은 학교인데요. 우리도 나가고, 공립학교에서도 몇 백 명씩 나가기도 하죠. 문제는 이런 대회에 나

가게 되면 우리 학교 학생들이 상을 다 휩쓸어 온다는 것이죠. 너무 민망해서 우리가 학생들의 출전을 금지를 시켰고, 학생들한테 자제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2. Floor 질문



[질문을 흥미롭게 듣고 있는 크리스]

강원재(사회) : 질문을 플로어로 돌려보겠습니다. 이어서 질문하실 분들은 질문을 해주십시오.

청중1 : 저는 무용 분야의 예술강사입니다. 저도 아이 세 명을 키우고 있는데요. 저도 놀이가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초등학교 대안학교를 다녔는데 일반중학교를 갔을 때 힘들어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알바니 프리스쿨 역시 그 이후 제도권 학교로 진입할 때 겪는 어려움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크리스 : 네, 문제입니다. 여기서 그 문제는 중학생이면 너무 이르다는 거죠. 대안학교에서 그만큼의 자유를 가지고 놀다가 공립학교로 바로 옮겨 가기에는 중학생정도도 너무 어린 나이가 아닌가 싶어요. 알바니 프리스쿨 경우에는 미국 학년제로 8학년까지 보내고요, 고등학생 나이가 되어서 공립고등학교로 진학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문제없이 적응합니다. 물론 따분함, 지루함은 난생 처음 겪어보는 아이들에게 때문에 굉장히 따분하고 지루해하죠. 하지만 그 나이 정도가 되면 최소한 책걸상에 앉아서 교사가 하는 말을 들을 준비는 된 나이는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학생이면 상황이 달라진다는 의견입니다. 사춘기에 들어서서 질풍노도에 진입하고 있고 모든 것이 변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덩치만 자랐지 아직은 아이잖아요. 그러므로 대안학교를 다니고 너무나도 자유롭게 놀기만 하다가 일반학교에 가서 책걸상에 묶여 수업을 듣기엔 중학생은 너무 어린 나이네요. 아직은 더 충분히 놀아야 할 시기이므로 그런 아이에게 공립학교에 가서 적응하라는 것은 아이에게는 너무나도 큰 충격입니다. 그러나 공립고등학교에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잘 적응을 하지만 더 취약한 아이들이나 유년기의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불안한 아이라면 고등학교 가서도 적응을 잘 못하고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알바니 프리스쿨에서는 그런 아이들이 문제를 치유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고등학교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큰 규모는 아니지만 맞춤형 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청중2 : 선생님 책에서 놀이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셨는데요, 더불어 듣고 싶은 게 아이들이 혼자 보내는 시간 ‘고독’이라고 표현하셨는데요.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나 아이들이 노는 걸 못 보죠. 그럼 아이

가 놀지도 않고 공부도 않고 뭔가 하지도 않고 시간을 보내는 것도 못 보잖아요. 아이들 삶에서 그런 여백, 한가한 시간 내지는 고독의 시간이 알바니 프리스쿨에서는 어떤 중요성으로 나타나는지 알고 싶습니다.

청중3 : 저는 서울 공립초등학교 교사이고, 전교조에서 활동합니다. 전교조에선 항상 나누는 이야기를 합니다. 교과서를 한 번도 안 펴고 공동체 놀이를 한다든지. 눈도 살아있고, 잘한다는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 즐거운 가운데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공격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힘이 되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사가 어떻게 내적 힘을 낼 수 있을지. 그래서 이런 고민 때문에 혁신학교를 세우거나 마을공동체를 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보니 거기로 노조 선생님들이 몰려서 다른 공립학교에는 노조원들이 없어서 힘이 빠지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혁신학교를 세우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될 거라는 비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크리스 선생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크리스 : 먼저 첫 질문부터 말씀드리면, 알바니 프리스쿨도 ‘고독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이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혼자 고독을 즐기든지, 어른 없이 아이들끼리 고독을 즐기든지 하는 시간을 충분히 둡니다. 그것은 우리 교육 자체가 상호신뢰를 기본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입학 순간부터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너희에게 상상도 못한 자유가 주어질 것이고, 그것에는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둡니다. 그것에 동의해야만 입학이 됩니다. 그러한 자유를 책임과 함께 즐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입학을 하지 말라고 분명히 못을 박아요.

자연스럽게 두 번째 질문으로 이어지는 데요. 우리는 처음부터 부모와 아이에게 동의를 받습니다. 이러한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들어오지 말라고 해요. 이것이 가능한 것은 우리가 사립학교이기 때문이죠. 기본적으로 교육철학에 대한 동의를 부모와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질문한 선생님 말씀같은 딜레마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립학교에서는 학생들도 인질로 잡혀있고, 마찬가지로 교사도 포로인 것이죠. 포로로 갇혀있는 교도소 같은 곳에서 교도관이 제대로 될 수 없다면 **탈옥하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것이 해결책이다’라고 조언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혁신학교로 전교조 교사를 비롯해서 좋은 교사들이 탈옥을 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공립학교의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뿐입니다. 혁신학교로 지정이 되는 게 그 학교가 엘리트로 지정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모범이 될 수 있다면 나머지 학교도 그것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혁신학교의 선만 잇는 것은 제대로 된 혁신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런 혁신학교로 선정된 학교로 성공을 했음에도 그것을 다른 학교들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사나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정책을 만들고 입안하는 지도자들이 문제라고 봅니다.

강원재(사회) : 제가 세월호 이후에 토요문화학교 수업을 참관하게 되었는데, 아이들이 놀고 있는 걸로 보였는데 아이들은 놀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호에 대해 아이들에게 물어봤더니 너무 슬플까봐 그 생각을 못한다는 거죠. 슬퍼할 여유도 없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도 많이들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가 원하던 원하지 않든지 책무들을 나눠가진 것 같아요. 그 책무들 놓치지 마시고 사시는 현장에서 정진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연해주신 크리스, 통역해주신 조응주 선생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끝)